

민주 “당 근본 바꾸는 전면적 혁신 나설 것”

김은경 혁신위원장 “민주당, 기득권 정치 표상돼” 내년 공천시스템 개혁 예고…“현역 기득권 혁파” 혁신위원 7명 명단 공개…상황 따라 추가 전망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을 주도하게 될 혁신위원회가 20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국회에서 주재한 혁신위 1차 회의에서 “민주당은 기득권 정치의 표상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에 희망을 제시하는 대안과 비전의 정당이 돼야 한다”며 “혁신위는 민주당의 근본을 바꾸는 대전에 시동을 걸고 국소 수술이 아니라 전면적 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국회의원 코인투자 사건’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위는 윤리 회복

방안을 실현하는 구체적 계획을 제안해 민주당이 신뢰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데 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며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공천 시스템 개혁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정당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국민에게 정치 혐오를 일으킨다”며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가 기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가 ‘이재명 대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1차 회의에서 김은경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친위대’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저는 정치권에 빛이 없는 사람”이라며 “당연히 친명(친이재명)도, 비명(비이재명)도, 친문(친문재인)도,

비문(비문재인)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저는) 계파 이익, 일부 강성 당원의 요구,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

한 현역 국회의원의 이해에 한 치의 관심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책임 있는 정당인 민주당 혁신기구의 수장으로서 엄중히 경고

한다”며 “이 시각 이후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혁신의 동력을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언행에는 일철의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현재까지 선임된 혁신위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김남희(45) 변호사, 정책연구소 ‘LAB2050’의 윤형중(40) 대표, ‘더가능연구소’의 서복경(53) 대표, 이진국(56)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지호(43)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해식(60) 국회의원, 이선호(63) 울산시당 위원장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김남희 변호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참여연대 북지조세팀장 활동했다. 윤형중 대표는 1983년생으로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이다.

서복경 대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법 이론과 형사사법제도 전문가다.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위기 전략 전문가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완성된 위원회는 아니다”며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더 모실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이낙연, 美유학 마치고 24일 귀국...역할론 주목

휴식 후 강연·북콘서트 검토...측근 “정치활동 서두를 필요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년간의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오는 24일 오후 귀국한다.

내년 4월 총선을 9개월여 앞두고 국내 정치 무대에 복귀하는 만큼 ‘이낙연 역할론’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지방선거 후 미국으로 떠나 1년간 조지워싱턴대학 방문 연구원을 지낸 이 전 대표는 귀국 후 당분간 공개 활동 없이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 정치적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친(親)이낙연계 의원들은 당장의 이낙연 역할론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 전 대표 활동이 자칫 ‘이재명 흔들기’로 비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역시 당분간 정치적 메시지는 지양하고, 대학 강연 위주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최근 파낸 한반도 대외정책 관련 저서 ‘대한민국 생존전략’ 북콘서트를 하며 전국을 순회하는 일정도 검토 중이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당분간 쉬면서 강연 위주 일정을 잡을 것”이라며 “정치 활동은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체제’로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당 안팎에 고조되면 자연스럽게 이 전 대표가 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기현 “국회의원 30명 감축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약 30명을 줄이자는 것인데 국회 주변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단순 ‘립 서비스’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또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겨냥해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집

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나.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꺼냈다.

아울러 그는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며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김승남 ‘댐건설 어업피해보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일 “댐 건설 등 영구적인 환경 변화로 발생한 어업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 청구 기한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정부가 손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경우 조사가 완료된 뒤 3년 이내에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본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업 피해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그런데 현행법 제73조는 사업 완료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



고 있다. 이에 따라 댐 건설 등 영구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상당 기간 동안 발생한 어업 피해의 경우 손실 보상을 청구조차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구 기한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정부가 손실이 발생했는지 조사를 착수한 경우 조사 완료 이후 3년 이내에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수기자

윤재갑, ‘日오염수’ 저지 단식투쟁 돌입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20일부터 국회 본청 정문 앞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12일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출 설비의 시험 운전전에 들어가면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특히 수산업계는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일 뿐만 아니라 수산업 자체를 송두리째 꺾어버리는 방식의 테러”라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원천적으로 저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방류 결정을



철저히 때까지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 행위로 일본의 해양방류에 명분만 찾고 핵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선동과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바다를 청정하게 지켜내고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온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전국 최저가 할인매장, 할인 이벤트!

후지의료기 PFC-7900

1954년 세계 최초로 양산형 안마의자를 개발한 일본의 명품 안마의자 브랜드

주요기능 : 4D마사지볼 / 더블센싱 체형감지 / 자동 다리길이 조절 / 12단계 강도조절 / 7가지 심층마사지 기술 / 트리플모드 에어 마사지 / 12종류의 부위별 집중 마사지 / 3가지 부위 집중 스트레칭 / 더블히터 / 21가지 자동코스 / 4개국 어 지원 4.1인치 터치스크린 리모컨

후지의료기 JP-870

67년 역사의 일본명품 안마의자 후지의료기 세계 최초 안마의자 개발, 일본 의료가기인증

주요기능 : 4D마사지볼 / 더블센싱 체형감지 / 트리플모드 에어 마사지 / 5가지 부위 집중 마사지 / 더블히터 / 더블히터 / 4가지의 초강력모드 / 4가지의 릴렉스모드 / 4가지 기본코스

사파헬스케어 SF-5100

꼭 필요한 기능을 빈틈없이 담은 사파헬스케어 SF-5000(에어윈)으로 최고의 힐링을 경험하세요

주요기능 : 5D입체마사지 / 9가지 자동코스 / 움직임스캔 마사지 / 종아리 스크럼 마사지 / 2중온열 / 스마트 AI 체형측정 / 불 히팅 온열마사지 / 전방 슬라이딩으로 공간 절약 / 슈퍼 롱 L스포레임 / 블루투스 연결 / USB충전 지원

사파헬스케어 SF-5000

SF-5000(더 베스트)의 기술력으로 차원이 다른 힐링의 세계를 경험하세요.

주요기능 : 5D입체마사지 / 스마트 AI 체형측정 / 불 히팅 마사지 / 움직임스캔 마사지 / 종아리 스크럼 마사지 / 어깨 에어백 위치 조절 / 발바닥 롤러마사지 / SL프레임 / 전방 슬라이딩 / 듀얼 에어퍼플 마사지 / 12가지 자동코스 / 헤드지압 마사지

영무SP Sports

☎ 062)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지번 : 백운동 644-33)

https://youngmoosp.itpage.kr